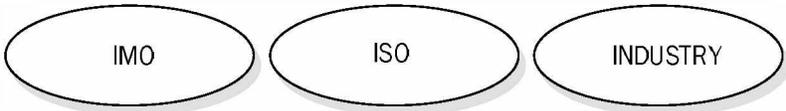




# ISO/TC8과 IMO의 관계

한국조선공업협회 기술개발지원팀  
차장 최병철



IMO	ISO	INDUSTRY
요구사항 규정 법규	IMO의 요구사항을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여, IMO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표준 제공	조선업계 기자재업계 선주 선박 운영자

### 요약

무역의 실행 가능성, 생산성 및 편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ISO/TC8 (Ships and marine technology)과 IMO와의 국제적인 협력 관계는 기본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으며, ISO/TC8은 IMO

의 요구사항, 규정, 법규 등을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여, IMO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IMO 및 Industry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계에서는 IMO 및 ISO의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조선 기술 및 축적된 Know-how를 세계화(IMO 또는 ISO로의 기술 정립을 문서

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조선 등 국제해사 문제를 다루는 UN 산하전문기구로서 각국의 정부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정부간 기구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해상안전, 항해의 효율성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 채택 시행 및 국제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차별적 조치 및 불필요한 제한 철폐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추고 있다.

ISO/TC8 (Ships and marine technology)의 한국대표기관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과이며, TC8 산하 11개의 SC(Subcommittee)에 대응하여, 국내에도 기술표준원 산하 국내 대응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분야 별로 투표 내용을 검토하고, 투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TC8의 분야별 SC(Subcommitte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SC 1 구조 및 화재보호 (Lifesaving and fire protection)
- SC 2 해양환경보호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 SC 3 배관 및 기계류 (Piping and machinery)
- SC 4 의장품 및 갑판기계류 (Outfitting and deck machinery)
- SC 5 선교설계 (Ships' bridge layout)  
: 2006년 10월 총회에서 SC 6로 흡수 통합됨
- SC 6 항해 (Navigation)
- SC 7 내륙항해선 (Inland navigation vessels)
- SC 8 구조 (Structures)
- SC 9 일반요건 (General requirements)
- SC 10 컴퓨터응용 (Computer applications)
- SC 11 복합수송 및 연안수송 (Intermodal and short sea shipping)
- SC 12 대형 요트 (Large Yachts)

우리나라가 ISO 규격을 제안한 현황을 살펴보면, 부

산대학교 백점기 교수가 2003년에 제안한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Structures Part 1 : General requirements for their limit state assessment 및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Ship Structures Part 2 : Requirements for their ultimate limit state assessment 등 2건에 대해 국제규격 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IMO DE(Ship Design and Equipment, 선박설계 및 설비 전문위원회) 48차 회의(2005년 2월)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대부분 반영된 Mooring Fitting 관련 내용은 OCIMF(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의 Mooring Equipment Guidelines 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2007년 7월 개정판이 나오면, 이에 따라 볼러드, 선큰 비트, 강제볼러, 클로즈드 초크 등 ISO 규격화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Project는 다음과 같다.

- 2007년 추진 품목 : 선박용 거주구 방화문 및 풍우 밀문
- 2008년 추진 품목 : 선박용 창문

현재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ISO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표준의 동향과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발굴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내표준, 단체표준, 국가 표준을 정립해 나갈 때 IMO 및 ISO까지도 연계시킨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선분야는 ISO 규격제정 및 개정의 실질적인 활동은 아직 준비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ISO/TC8 국내조직을 강화하여, ISO 규격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한국의 조선산업 및 기자재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활동이 요망된다. **표준**